

코트라, 中 소비재박람회 참가 뷰티·식품 등 프리미엄 시장 겨냥

韓 프리미엄 소비재 제품 집중홍보
한국관 운영… 총 45개사 참가해
中 면세시장 진출 적극 지원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이달 13일~18일까지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 열린 '중국 국제 소비재박람회'에 참가해, 프리미엄 소비재 제품을 집중 홍보하는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소비재 전문 전시회인 이번 전시회는 올해 패션·주얼리·화장품 등 일반 고급 소비재부터 슈퍼카·요트 등 초고가 럭셔리 품목까지 다양한 제품이 전시됐으며, 면세점 구매 담당자와 중국 전역의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B2B상담과 소비자대상 B2C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관은 ▲기업 전시관 ▲프리미엄 소비재 쇼케이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상담회 ▲방한 관광 및 K-콘텐츠 홍보존 등으로 구성됐으며, 뷰티, 건강 식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우리기업 45개사가 참가했다.



‘중국 국제 소비재박람회’ 한국관 운영 모습.

/코트라

특히 ‘이도면세(Offshore Duty Free) 제도 활용 바이어 상담회 부스’를 통해 참가기업이 하이난 지역 유통망과 바이어와의 연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맞춤형 B2B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이도면세는 하이난성 방문 후 중국 본토로 가는 내·외국인에게 면세 구매 혜택을 주는 제도로, 하이난성을 떠난 후 180일 내 온라인으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다.

홈케어 뷰티 제품 제조기업 APR그룹은 중국 대형 면세점 운영사에 제품을 선보였고, 화장품 전문기업 미제레

레사는 유명 한국인 왕홍(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인플루언서를 의미하는 중국어)을 초청해 현장에서 라이브 판매를 진행하며 중국 젊은 소비자층과 접점을 넓혔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과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활용해, 우리 프리미엄 소비재의 중국 면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사업을 통해 우리 소비재 기업의 대중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장애인고용공단-현대차,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등 업무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현대자동차는 21일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합 직무개발 ▲장애인 고용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특화 직무를

발굴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 내 장애인 인식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장애인 고용에 대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혜인 현대자동차 HR본부장(부사장)은 “현대차는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제주도 음식물 쓰레기로 청정수소 만든다

환경부, 바이오가스 수소생산 지원

제주도가 후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 사업’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21일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부문 사업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국비 9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환경부가 2023년부터 매년 2곳씩 선정해 수소 생산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순도 95% 이

상의 메탄으로 정제한 후 이를 수소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제주도는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하루 4000N m3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매일 수소 500kg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수소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100대가량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비 288억 원을 지원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4곳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부 시설이 완공돼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혁신 이끌 ‘에너지 신기술’ 모델 발굴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 개최
우수기업 선정, 사업화 자금 지원

한국전력이 자사 에너지신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우수사례와 유망 사업모델 발굴에 나선다.

한전은 ‘KEPCO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을 첫 개최하고, 내달 12일까지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모델 등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전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가 후원한다.

공모는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사례 ▲유망기술 활용 BM(Business

Model) 콘테스트 2개 부문으로 나뉘며, 참가자격은 우수사례 부문은 한전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경험이 있는 기업, BM 콘테스트 부문은 창업 7년 이내 중소 또는 벤처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이메일(startup@ksa.or.kr)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평가를 통한 총 30개사를 대상으로 2개 부문별로 5개 우수기업을 선정한 후, 6월 중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최종 경연으로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경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상, 한전 사장상, 한국표준협회장 및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장상이 수여되고, 공모 부문에 따라 CES2026 참관, 중동지역 수출촉진회 참가 지원, 사업화자금(1~3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전문 컨설팅 캠프 참여 및 기업 사업화 패키지 지원, 전력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전문가의 기술지원, 판로개척과 투자유치 연계 등 다양한 특전도 제공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이번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을 통해 유망 에너지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 신기술 사업화와 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 박종필 선임

前 고용노동부 대변인
“근로자-기업 상생 이끌 것”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박종필(57·사진) 전 고용노동부 대변인을 제8대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임 사무총장 임기는 2028년 4월 20일까지 3년이다.

박종필 선임 사무총장은 고려대 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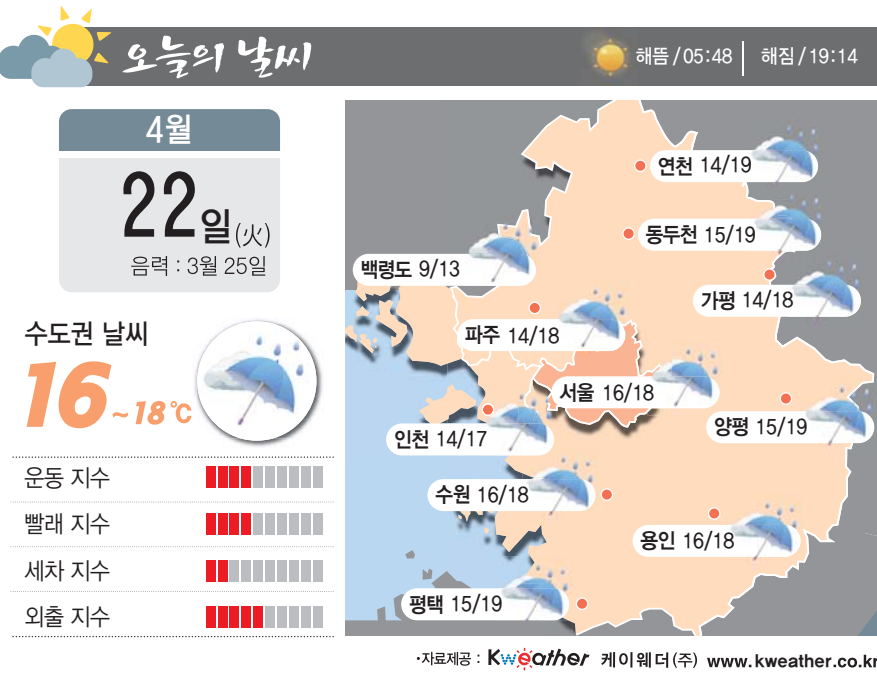
고용정책관, 근로감독정책단장, 근로기준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4월~12월, 2023년 7월~2025

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버밍엄대에서 석사학위를, 영남대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용부에서 청년

년 4월까지 두 차례 대변인을 맡았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과 협업으로 ‘일하는 즐거움’을 실현하겠다”며 “재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G20 재무장관 회의 23일 워싱턴서 개최…美 재무 첫 참석
▲유발 하라리 “트럼프의 제로섬 사고, 궁극적으로 세계 전쟁 초래”
/사진 뉴시스

▲‘30시간 부활절 휴전’ 종료…러·우, 휴전 위반 네 탓 공방
▲다이시바,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중국 “우리 이익 희생 대가로 미국과 거래시 반격”
▲‘신혼여행의 성지’ 태국 푸켓에…쓰레기 더미 가득